

마약사범 5882명 사살...법 위에 두테르테

일반인도 ‘묻지마 사살’ 동참
경찰은 부당 사살 은폐 의혹
초법적 처형 비판 여론 확산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사진) 대통령의 거침 없는 ‘마약과의 유혈전쟁’으로 초법적 처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현지 ABS-CBN 방송이 경찰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취임과 함께 마약 유통소탕전에 나선 이후 5개월간 필리핀 전역에서 총 5882명이 사살 또는 살해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마약 용의자 2041명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사살됐다. 또 7~11월 3841명이 경찰이 아닌



고한에 의해 살해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마약 용의자로 지목돼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저항하는 마약 용의자를 사살해도 좋다”고 하자 경찰뿐만 아니라 자경단과 일반인 등도 ‘묻지마식’ 사살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이 마약 용의자로 몰려 살해됐다는 하소연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경찰이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마약용의자를 처형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매매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공무원이 자수,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경찰에 살해되는 일이 일어났다. 필리핀 법무부 소속 국가수사국(NBI)은 지난 11월 5일 레이테 주 교도소에서 일어난 몰란도 에스피노사 음장 사망 사건에 대해 이런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당초 경찰은 에스피노사 음장을 비롯한 재산자들 간에 총격전이 일어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BI는 목격자들 증언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이 에스피노사 음장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고 관련 경찰관 24명에 대해 살인 및 위증 혐의로 법무부에 기소 의견을 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동안 에스피노사 음장의 사망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경찰 발표를 믿는다고 말해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찰관을 비롯한 법 집행관들이 마약매매 용의자를 사살했다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적극적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해 초법적 처형을 부추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8월에는 필리핀에서 경찰 의뢰를 받고 마약용의자를 죽이는 청부살인팀이 있다는 영국 BBC 방송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단단해지는 미·일 동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지난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카터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진주만의 애리조나 기념관 방문 때 “두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와 결의를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아베 진주만 방문 공식 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 와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방문하기로 하자 중국이 난징(南京) 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하라며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인 중국은 무시한 채 진주만을 방문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난징 대학살은 일본이 1937년 중국 난징을 점령했을 때 40일간 30여만여명의 중국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중국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일본은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군국주의 발현

으로 인한 침략 전쟁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서 “오늘날까지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역사에 대해 정확하고 진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보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미국인들이 진주만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항일 전쟁으로 인한 거대한 민족 희생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난징 대학살로 희생된 동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오는 26~27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진주만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쟁 희생자들을 위령한다. 현지 일본 총리가 희생자 위령을 위해 진주만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안창호 건립 美 최초 한인촌 사적지 지정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이 190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에 건립한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가 사적지(Historic Site)로 지정됐다. 리버사이드 시 문화위원회(Cultural Committee)는 6일(현지시간) 시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산 선생이 건립한 파차파 캠프 사적지 지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산의 막내아들 랠프 안(91·한국명 안필영) 옹과 홍명기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총회장, 장태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UC 리버사이드) 김영욱 재미동포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리버사이드 시의회는 내년 3월 23일 파차파 캠프가 건립된 장소에서 사적지 지정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리버사이드 시 다운타운에 있던 파차파 캠프에는 당시 한인 10여 개 가족 50여 명이 거주한 판자촌이었다. 1880년대 중국계가 철도공사를 하면서 임시거주지로 터를 잡았다가 떠나면서 한인들이 들어와 정착한 곳이다. /연합뉴스

500kg 최고 몸무게 이집트인 우여곡절 끝 인도서 비만 치료

체중이 500kg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집트 여성이 인도에서 비만 치료를 받게 됐다. 7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이만 아메드 압둘라티(36·여·사진)는 자라면서 몸무게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불어나면서 11세 때부터 학교는 커녕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압둘라티는 사상충이 혈액에 기생해 유발되는 ‘코끼리피부병’(elephantiasis)과 이로 인한 내분비선 장애로 이같은 몸무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라티 가족은 지난 10월 인도 뭍바이의 유명 비만치료 전문의 무파잘 라크다왈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라크다왈라는 마침내 압둘라티의 치료를 돕기로 하고 그를 인도로 데려올 항공편 마련을 위해 직접 모금에 나섰다. 라크다왈라는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에게 압둘라티의 사연을 소개하며 비자 발급을 도와달라고 지난 5일 트위터 메시지를 남겼다. 압둘라티는 치료 비자를 받았고 조만간 인도로 와 비만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 시글리 마을 인근 해안에서 7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6.5의 강진으로 무너진 이슬람 사원 앞에 주민들이 몰려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6.5 강진...최소 92명 사망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 7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2명이 숨지고 약 300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날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주민들이 매몰된 데다 부상자 중 일부가 위중한 상황이라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아체주의 주도 반다아체에서 동쪽으

로 88km 떨어진 시글리 마을 인근 해안으로 파악됐다. USGS는 이번 지진의 규모를 예초 6.4로 관측했다가 이후 6.5로 수정했다. 진원의 깊이는 8.2km로 얕은 편이라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첫 지진 이후 3시간 동안 규모 3.2~4.8의 여진이 10차례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즉각 파악되지 않았

으나, 현지 언론은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시글리 등 아체주 피디에 일대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dpa통신은 현지 장성급 군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 수가 92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dp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들 희생자 외에 중상자 73명을 포함해 3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하고 최소한 125채의 가옥과 이슬람 사원 14곳이 전파됐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방재청은 중상자와 경상자 수가 각각 73명과 200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토지, 6256평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1번지 외 6필지
- 토지 6256평 / 계획관리지역
- 매매 - 16억
- 건물 256평, 현재 양어장 운영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상)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